

2018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스테이트 아방가르드의 유령(Spectres of the State Avant-garde)” 미리보기

1. 기획의 글

▶ 한국 개발 체제의 싱크탱크이자 당대 최고 건축가들의 집합소였던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의 작업 최초 조명

- 201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한국의 현대 건축과 국가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서울의 도시 구조와 한국의 여러 제도와 체제의 가까운 기원이 되는 1960년대 말은 국가의 계획 이데올로기가 건축가의 비전이 뒤엉켜 있던 시대였다. 억압적인 발전 국가는 역설적으로 유토피아적 이상을 꿈꾼 건축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국가”와 “아방가르드”라는 형용 모순적인 단어의 병치를 통해 권력과 상상력 사이의 간극, 정치체제와 유토피아적 이상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이 전시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기공)에 주목한다.
- 1965년 설립된 국영 건축 토목 기술 회사인 기공은 항만, 수도, 교량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세운상가, 박람회 파빌리온 등의 건축물에 이르는 국가 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김수근, 윤승중, 김석철, 김원, 유길, 김원석, 전상백, 기홍성 등 이후 한국 건축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 모두 거쳐 간 기공은 당대 최고의 용역 설계회사였다. 동시대 서구의 급진적 건축 실험과 유사하게 몽상적이기도 했고, 개발 계획에 맞추어 대단히 현실적이기도 한 이들의 작업은 서울의 하부 구조이자 한국 도시 계획의 원형이 되었다. 초기 도시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의 역사와 활동,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억의 파편으로만 남아 있다. 이 쓰이지 않은 역사, 기록되지 못한 기억에서 이 전시는 시작한다.
- <스테이트 아방가르드의 유령>은 어긋난 시간의 중첩을 무대화한다.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류되지 못한 과거를 소환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충실한 아카이브가 부재하는 가운데

한국 현대 건축의 신화적 기원과 파우스트의 거래 사이를 오가는 기공의 작업을 이 전시는 유령 또는 귀신으로 호명하고자 한다. 유령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포착되지 않는 과거, 불현듯 출몰하지만 실체가 명확지 않은 존재를 지칭한다. 유령성(spectralities)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그리고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서 유령의 존재를 호출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즉 이 전시는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거나 회고적으로 상찬하는 대신, 문제의 기원을 경유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한국관은 1960년대 기공의 프로젝트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역설에 주목한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물었던 엑스포70 한국관은 더이상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토피아적 이상 도시와 군사 퍼레이드를 위한 극장 사이를 오간 여의도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공공 공간의 가능성을 되묻는다. 도심재개발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과제가 된 세운상가에서는 거대 구조물의 잠재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박람회 가설 구조물이 사라진 뒤 저임금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된 구로에서는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한 이주노동자들의 궤적을 추적한다. 2018년 한국관은 이를 통해 획득한 파편적인 단서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시구성과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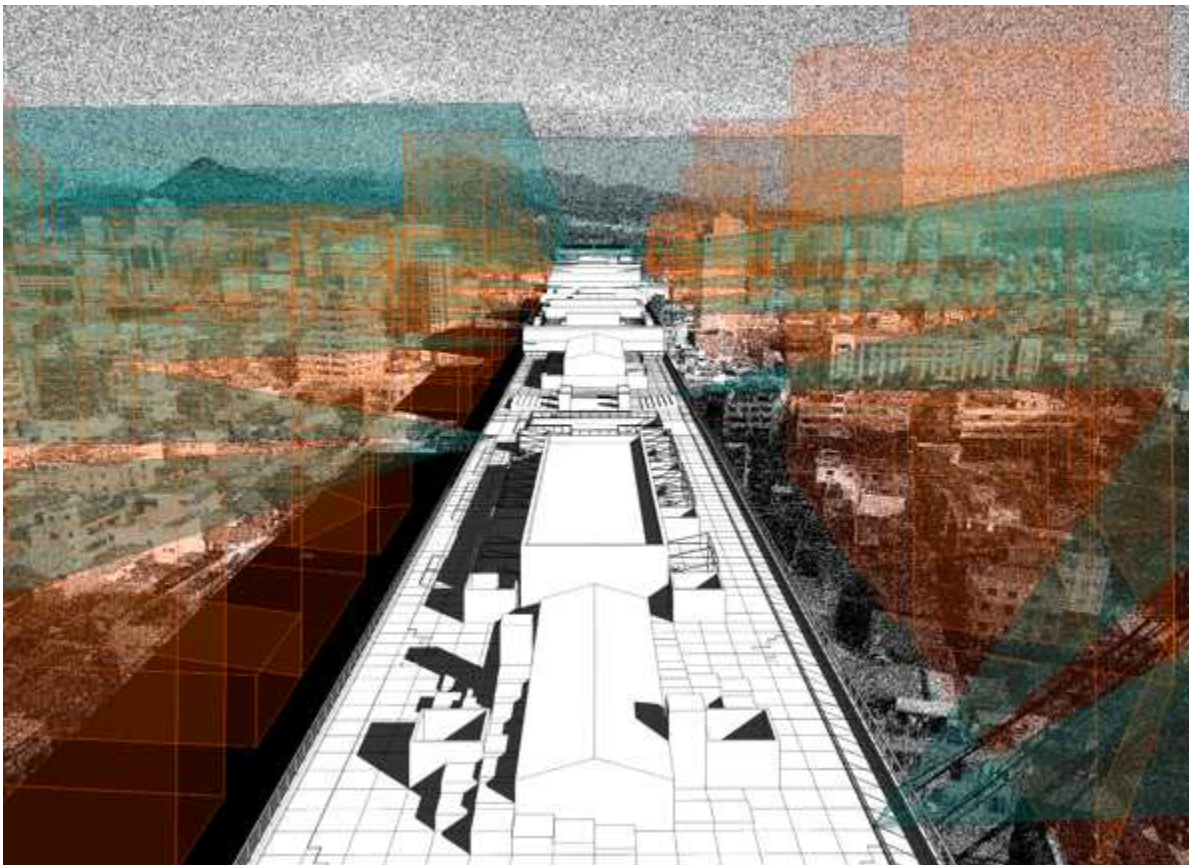
▶ 60년대 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세운상가>, <구로 무역박람회>, <여의도 마스터플랜>, <엑스포70 한국관> 아카이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 젊은 건축가들의 신작 공개

- 본 전시는 두 개의 기공 아카이브와 7인(팀)의 참여 작가들의 신작으로 구성된다. 각각 ‘부재하는 아카이브’와 ‘도래하는 아카이브’로 이름 붙인 아카이브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매개하며 그것을 읽기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 한국관 건축의 정사각형 벽돌 방은 전시의 출발이 되는 기공의 1968년을 중심으로 그와 인접한 전후 시간을 담는다. 이곳은 신작들의 불완전한 참조점이자 색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향한 열망과 그것이 건축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믿음이 가장 컸던 시대, 당시 기공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생산한 작업을 살펴본다.
- ‘부재하는 아카이브’는 역설적으로 온전하게 역사화가 되지 못한 기공의 4개 프로젝트(세운상가, 구로 무역박람회, 여의도 마스터플랜, 엑스포70 한국관)에 대한 증언이다. 건축가들의 이상은 국가의 이목을 끈 한편, 일부는 그로부터 선택되지 못하고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오히려 조금씩 어긋났던 작업의 결과는 국가기록원과 같은 제도적 기록보관소(아르케리온)에 남아 있다. 이렇듯 실현되지 못한 건축가들의 제안은 현존하는 위 장소들을 완전히 대변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의 간극과 갈등을 충분히 되새긴다. 이 공간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실패한 이상을 수집하는 곳이다. ‘부재하는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되지 못한 것, 한낱 보고서의 그림으로만 남은 건축가들의 이상의 위상을 재배치한다.
- 반면 전시장의 로비 공간에 위치한 ‘도래하는 아카이브’는 어떤 상황이자 분위기로만 존재하는 모호한 영역이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제안한 작품들이 서로를 비추는 환영 속에서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이에 곁치는 관람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선언을 제안하기보다 다가올 시간을 상상하게 한다. ‘도래하는 아카이브’는 스테이트 아방가르드의 유령을 대면한 이후 쓰게 되는 비평적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이는 과거 유산 위에서 한국의 현대 건축과 국가의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조건이자 예술적 실천의 단초가 될 것이다.

3. 작품소개

□ 급진적 변화의 도시 - 김성우(N.E.E.D.건축사사무소)

- <급진적 변화의 도시>는 세운상가에 기생한 네트워크화 된 도심 산업 조직을 서울만의 독특한 근대 도시 건축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토대로,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일방향적인 전면 재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세운상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운상가의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관의 주요 통경축을 활용한 주변 도시 조직의 입체적인 컨트롤 전략과 세운상가의 공공영역을 주변 블록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번 작업은 1968년 당시 개발 시대의 선봉으로 기능했던 기공의 세운상가에 대응하는 2018년의 새로운 세운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 김성우, 급진적 변화의 도시(세운상가 옥상 통경축), 2018

□ 빌딩 스테이츠 - 강현석, 김건호(설계회사)

- 엑스포70 한국관은 국가와 개인의 서로 다른 열망 사이에서 기이하게 절충되었다. <빌딩 스테이츠>는 나란히 공존할 수 없었던 엑스포70 한국관의 두 가지 역사적 시간을 공동의 중립적 기반 위로 옮겨 온다. 양립 불가능한 현상들은 시차적 관점을 통해 하나의 차원에 담긴다. 전시관 내부로 들어온 엑스포70 한국관은 외부에 설치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내는 현상 사이에 존재한다. 변화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시점들은 두 현상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동요하며 과거 엑스포70 한국관에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던 관점들을 비로소 대면시킨다.



▲ 설계회사, 빌딩 스테이츠(개념도), 2018

□ 꿈 세포 - 전진홍, 최윤희(바래)

- <꿈 세포>는 박람회와 별집, 노동착취의 현장과 테크노밸리를 오간 구로의 파편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술이 진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근대의 믿음을 견지하면서 비판적, 미래지향적 건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건축을 단순한 스타일이나 형태 창작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생산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고, 근대 건축 아방가르드가 꿈꾸었던 총체성이라는 가상의 파편들을 수집하여 재구성한다. 사회 권력이 시민으로 이양되고 있는 오늘날, 마치 1968년 한국무역박람회를 통해 국가의 장밋빛 미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려 했듯, 201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달콤한 미래’의 이미지로 세계시민들과 같지만 다른 꿈을 그려보고자 한다.



▲ 바래, 꿈 세포, 2018

□ 미래의 부검 - 최춘웅

- <미래의 부검>은 현실과 상상, 소설과 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극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러 주체의 이야기들을 담는다. 이들의 기억은 ‘여의도’라는 거대한 시대적 실험을 통해 엮여 있으나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이야기에 끌려가는 자가 없이 함께 평행선을 그리며 진행된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의도는 구체적인 장소보다 은유적인 허상으로 존재한다. 언제부터인가 면적의 단위가 되어버린 여의도의 거대함, 광활한 평평함, 구석이 존재하지 않는 어색함이 유토피아로서 여의도의 비현실적 이미지를 유지한다. 아스팔트 광장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고, 농성했던 수백 만의 기억과, 가을마다 여의도 하늘 위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모이는 군중, 봄마다 벚꽃 아래 윤중제를 걷는 시민들에게 여의도는 지금도 가까운 유토피아다. 여의도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의 예언적 개념으로서의 운명은 국가 정체성의 견고함과 맞물려 있다. 사회적이며 미학적인 실험대상으로서 여의도는 여전히 한국 아방가르드 건축의 성지다.



▲ 최춘웅, 미래의 부검, 2018

□ 환상도시 - 서현석

- <환상도시>는 구현되지 않은 ‘자유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맥거핀으로 삼아 1960-70년대에 이루어졌던 근대화의 궤적을 추적한다. 특히, 기공에 관련되었거나 이를 연구한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식민통치와 전쟁 이후 국가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관인 기공이 수행했던 역할과 비전을 재조명한다. 거대한 자유 공간으로 ‘리셋’되는 대신 타협되고 굴절된 비전들의 중첩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도시 서울의 이면에 평행 현실처럼 아른거리는 ‘환상도시’의 그림자들을 추적한다. 태어나지 않은 비전의 유령, 그 추적은 일련의 질문을 곱씹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방가르드 모더니즘의 가능성은 국가 제도의 울타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제안되고 구현 혹은 좌절되었는가? <환상도시>는 오늘날의 서울을 들여다보는 환상의 거울이다.

□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 - 정지돈

-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의 화자는 1968년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하고 다음 해 엑스포70 한국관 안내원으로 선발된 정태순이다. 식민 지배와 이념 갈등의 여파로 반 토막 난 동아시아 국가에서 태어나 10대에 혁명과 독재를 경험하고 대학에 입학한 여성에게 서울은 어떤 곳이었을까. 동조와 비판의 시스템에서 소외된 소수자가 내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 소설의 제목은 엑스포70 테마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구를 차용한다. ‘Light from Anywhere’는 타고르의 시구 ‘Light from East’를 패러디한 것으로 당시 국제 저널리스트인 마쓰모토 시게하루가 제안했으나 선정되지는 못한 미완의 문구다.

□ 참조점 - 김경태(EH)

- <참조점>은 1960년대 기공의 네 프로젝트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참조점들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재구성한 작업이다. 과거의 자료와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이 결합한 이미지는 우리 앞에 유령처럼 출몰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유령은 형태는 온전하지 않지만 대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유령을 만난 당사자의 몫이며, 눈앞의 유령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그의 몫이다. 각각의 이미지는 건축화됨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이 병합된 파노라마로 구성된다.

4. 참여자 약력

□ 예술감독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건축신문>을 발간하고, 건축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원>, <원맨원북> 등의 포럼 시리즈와 <뉴 셀터스: 난민을 위한 건축적 제안들>, <협력적 주거 공동체>, <파빌리온씨> 등의 건축 전시를 기획했다. <월간 미술>, <인서울매거진>, <공간>에서 예술 건축 관련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페차쿠차 나잇 서울>, <테드x서울>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 공동큐레이터



최춘웅

최춘웅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이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다. 역사적 건축물의 재활용, 도시 재생, 그리고 건축의 영역을 독립된 문화 행위이자 지식 생산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전시공간을 디자인했고, 아트선재, 문화역서울, 일민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설계작품으로는 점촌중학교, 꿈마루,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라쿠치나 남산, 상하농원 등이 있다.



박정현

박정현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트폴리오와 다이어그램』, 『건축의 고전적 언어』 등을 번역했으며,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그룹』, 『아키토피아의 실험』, 『중산층 시대의 디자인 문화』 (이상 공저) 등을 썼다. <2011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Out of the Ordinary>,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 등의 전시 기획에 참여했다. 현재 도서출판 마티의 편집장으로 일하며 건축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다영

정다영은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월간 『공간』에서 건축 전문 기자로 일했다. 201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며 건축 부문 전시 기획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전시 실행 등 건축 실천의 다양한 확장에 관심이 있다. 기획한 전시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첫 번째 파빌리온 프로젝트인 <아트폴리 큐브릭>(2012)을 비롯,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2013),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2014), <아키토피아의 실험>(2015), <보이드>(2016), <상상의 향해>(2016),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 등이 있다.

□ 참여작가



김경태

김경태(b.1983)는 중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스위스 로잔 미술대학원 아트디렉션 과정을 공부했다. 주로 크고 작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미지화 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며 종종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 또는 기획자와 협업한다. <그래픽디자인서울, 2005~2015, 서울>(일민미술관, 2016),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16), <종이와 콘크리트>(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6) 등의 전시에 참여하고 『On The Rocks』(유어마인드, 2013), 『Cathédrale de Lausanne 1505-2022』(미디어버스, 2014), 『Angles』(프레스룸, 2016) 등의 사진집이 있다.



김성우

김성우(b.1974)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 네덜란드 베를라헤 인스티튜트에서 건축설계와 도시 리서치를 공부했다. 2011년부터 N.E.E.D.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故 이종호와 함께 서울 도심 을지로 지역 리서치와 소필지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 및 건축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서울 도심의 거대구조를 활용한 공공영역 재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 설계 작품으로 상계동 주거복합, 더북컴퍼니,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등이 있다.



바래(BARE)

바래(BARE)는 전진홍(b.1982), 최윤희(b.1982) 에 의해 서울에 설립된 건축 스튜디오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도시 속 시간과 환경에 조응하는 리서치 기반의 건축작업을 2014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다. 전진홍은 영국AA스쿨 졸업 후 네덜란드 OMA와 공간그룹에서 실무를 쌓았다. 최윤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와 AA스쿨 졸업 후 월킨슨아이어, 제이슨브루지스 스튜디오 등에서 공공 예술 및 건축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모로우> 공모전 수상 (2015),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6> 최종후보군으로 선정되었고, ACC <새로운 유라시아> 키네틱파빌리온 설치 및 전시(2015)에 참여하였다. 최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2017)에 초대되어 세운상가 일대에 새로운 재활용 네트워크를 조명한 영상작업을 선보였다.



서현석

서현석은 근대성의 맥락에서 공간과 연극성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헤테로토피아>(서울, 2010-2011), <영혼매춘>(서울, 2011), <매정하게도 가을바람>(도쿄, 2013), <From the Sea>(도쿄, 2014) 등의 장소특정 퍼포먼스, 그리고 <Derivation>(2012), <잃어버린 항해>(2012-), <하나의 꿈>(2014), <Zoom out / Zone out>(2013-14) 등의 영상 작품을 만들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설계회사(SGHS)

설계회사(SGHS)는 강현석(b.1980), 김건호(b.1980)에 의해 2015년 설립된 건축사무소로 내러티브와 텍토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현석은 성균관대학교와 코넬건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헤르조그 & 드 뫼롱의 바젤 사무실에서 일했다. 김건호는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DMP건축에서 근무했고, 이후 코넬건축대학원과 하버드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민미술관 <그래픽 디자인 2005~2015>(서울, 201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0년 특별전 <상상의 향배>(서울, 2016)에 참여했고,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7>에 최종 후보군에 선정되었다.



정지돈

정지돈(b.1983)은 대구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와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2013년 『문학과 사회』의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눈먼 부엉이」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건축이나 혁명이나」로 2015년 젊은작가상 대상과 「창백한 말」로 2016년 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실과 허구의 관계를 묻는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역사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묻는 작업을 지속 중이다.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아키토피아의 실험> 도록의 에필로그 「어떤 작위의 도시」를 실었고, 낸 책으로는 소설집 『내가 싸우듯이』, 문학평론집 『문학의 기쁨』(공저), 소설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가 있다.



최춘웅

최춘웅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이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다. 역사적 건축물의 재활용, 도시 재생, 그리고 건축의 영역을 독립된 문화 행위이자 지식 생산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전시공간을 디자인했고, 아트선재, 문화역서울, 일민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설계작품으로는 점촌중학교, 꿈마루,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라쿠치나 남산, 상하농원 등이 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고해상도 이미지는 www.webhard.co.kr 에서 ID: mac001 PW: mac001로 접속하셔서 Guest > 2018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폴더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5 / sybyeor@arko.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